



平山申氏宗報

(04555)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22 平山申氏大宗中
TEL : 02-776-6111, 6151, 7978 · FAX : 02-776-7990
홈페이지 www.pyeongsan.com · E-메일: pyongsan777@naver.com

春川墓所 033-243-2076
表忠齋 053-985-1330
龍山壇 061-363-1495
德陽書院 010-8762-7799



發行人 申 澈 秀
編輯人 申 澈 秀
印刷人 宋 永 哲



제210차 상임유사회의 개최



제23대 철수(澈秀)도유사 취임 후 처음으로 2020년 6월 16일(화)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한일장에서 상임유사 총원 33명중 22명이 참석하여 제210차 상임유사회의가 개최되었다.

국기에 대한 경례와 시조 장절공 및 조상님들 그리고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실시한 후, 철수(澈秀)도유사는 전북화수회 회장으로 선임된 정차(正次) 상임유사와 광주·전남화수회 회장으로 선임된 상남(相南) 상임유사를 소개하고 참석 상임유사들이 박수로 환영하였다.

이어서, 코로나의 위험이 계속되는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여 불안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도유사에 취임하고 2개월여가 지났기에 당면한 사항들의 보고와 토의사항을 상임유사님들과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자 하는 것이며, 그간 미진하지만 업무과약에 매진하고 있고 우리 대종중이 안정적으로 성장·발전하며 화목한 종중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해 가되 원칙을 준수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초심을 지켜나가자 하오니 많은 협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인사말을 하고, 부도유사로 선임된 10명을 소개하였다. 봉식(鳳湜) 文僖公派 도유사, 문철(文澈) 正言公派 도유사, 근택(根澤) 思簡公派 도유사, 현대(鉉大) 齊靖公派 도유사, 동석(東錫) 典書公派 도유사, 현문(鉉文) 表忠齋 도유사, 현덕(鉉德) 서울시화수회장, 용철(龍澈) 江原道화수회장, 형식(亨湜) (진)光州·全南 화수회장, 방식(芳湜) 濟州道 화수회장은 차례로 기립하여 인사하고 전체 참석자가 박수로 축하를 해주었다.

회의는 먼저 총무부장의 보고사항으로부터 시작되어, 4개 분과위원회가 별표와 같이 구성되었으며 시조 장절

공의 영정(影幀)에 대한 보존처리작업을 약3개월간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고, 강원도청과 춘천시청 문화재담당 부서를 도유사와 총무부장, 강원화수회 용철(龍澈)회장이 5월 29일 방문하여 금년 예정사항인 춘천묘역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의 당부와 감사를 전하고, 묘소 우측으로 올라가는 제수봉송로 신설공사를 내년도 시도(市道)예산에 반영해 주도록 요청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춘천 묘역내 기념관바닥의 방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용산단의 화장실 보수공사와 외곽 조경공사 및 관리인숙소의 보수공사 등에 대한 지원, 덕양서원 내부 시설공사에 대한 지원, 문경의 고려충신유적성역화사업 지원 등을 2020년 예산 및 사업계획에 준하여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다음으로는 토의사항의 안건1호로 대종중이 보관하고 있는 천년사를 각 파종중과 유적지종중, 시도화수회에 배분하는 의안이 상정되어 대종중에서 배부기준을 정해서 배분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으며, 안건2호 춘천묘역 전사청의 현판교체의 건이 상정되어, 대종중내의 공문화과정은 거치지 않고 소수의 집행부인원이 전사청 준공과 함께 현액(懸額)되었던 현판(光淳 대종중고문의 작품)을 임의로 현재의 현판으로 교체한 일은 부적절했으므로 원상회복되어야 하는 바, 전사청 준공시의 현판으로 교체할 것을 의결하였다. 안건3호인 평산신씨대종중과 각 시도화수회에 청장년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안건은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차기 상임유사회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다.

이어서 대종중임원수첩 제작의 진행상황 설명과 각 파종중과 유적지종중, 시도화수회의 주요행사는 대종중에 꼭 문서로 통보하여 협조와 정보공유를 긴밀히 하고, 가능한 한 대종중에서 도유사나 직원이 참석하도록 할 것임을 공지하였다.

마지막으로 철수(澈秀)도유사는 대종중의 현재 재정상태에 대한 설명을 통해, 대종중의 수입은 아세아빌딩의 임대수입인 연간 1억2천만원이 전부인데 반해 지출은 3~4억원에 이르고 있어 인천빌딩 매각대금과 의성임야 매각대금까지도 대종중 운영비에 충당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신규건물의 매입을 통해 수입을 늘리는 일이 급선무로, 재무상태의 개선이 될 때까지는 파종중이나 유적지종중 등에 대한 대종중의 지원금을 중단할 수 밖에 없음을 천명하고 제210차 상임유사회의 폐회를 선언하였다.

▶ 분과위원회

별	제례·계보위원회		장학·상벌위원회	
1	위원장 홍균(興均)	정인공과고문, 대종중대의유사	위원장 동석(東錫)	진서공파 도유사(典)
2	부위원장 용철(龍澈)	강원도화사회장(思)	부위원장 재식(載錫)	은수감공파도유사(溫)
3	위 원 동일(東日)	대종중대의유사(思)	위 원 동훈(東勳)	강원도화사회부회장(思)
4	위 원 동원(東元)	대종중대의유사(文)	위 원 재봉(在鳳)	표종재 총무(判)
5	위 원 승철(承澈)	정인공총무, 대종중대의유사(正)	위 원 백순(白淳)	사간공파부도유사(思)
6	위 원 의호(義浩)	판사공파 종원(判)	위 원 현진(鉉鎭)	정인공파상임유사(正)
7	위 원 현목(鉉穆)	강원도화수회부회장(思)	위 원 광섭(光燮)	대전충남(화)부회장(文)
8	위 원 대수(大秀)	강원도화수회제례위원(正)	위 원 성철(成澈)	이상공파 총무(貳)
9	위 원 우현(佑鉉)	대종중대의유사(文)	위 원 동건(東建)	대종중대의유사(進)

별	편집·종규위원회		재산관리위원회	
1	위원장 표균(彪均)	진사공파 도유사(進)	위원장 봉식(鳳錫)	문화공파 도유사(文)
2	부위원장 홍현(弘鉉)	문회공파 전첨공도유사(文)	부위원장 현덕(鉉德)	서울시화사회장(文)
3	위 원 현관(鉉官)	사간공파 한림공도유사(思)	위 원 재철(在澈)	은평구화사회장(密)
4	위 원 주철(周澈)	한성윤공파 총무(漢)	위 원 현화(鉉和)	진서공파 총무(典)
5	위 원 수철(垂澈)	창원공파 총무(參)	위 원 현주(鉉珠)	강원도화사회(齊)
6	위 원 금철(金澈)	대종중대의유사(思)	위 원 언권(彦權)	정인공파 감사(正)
7	위 원 동기(東基)	제정공파 예인문중(齊)	위 원 동천(東天)	제정공파 총무(齊)
8	위 원 언기(彦琦)	현령공파 총무(顯)	위 원 -	-
9	위 원 동완(東完)	제정공파 봉래공종중 총무(齊)	위 원 -	-

정·부도유사 및 감사유사 상견례



5월 13일(수요일) 정·부도유사 및 감사유사 상견례가 퇴계로에 있는 “한국의집”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10명의 부도유사와 3명의 감사유사 전원이 참석하여 평산신씨대종중의 화목과 발전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뜻 깊은 시간을 함께하였다. 이 자리에서 철수(澈秀) 도유사는 부도유사, 그리고 감사유사는 도유사와 한 몸으로 움직이며 종사를 이끌어 주실 분들이므로 특별히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인사하고, 그런 당부를 드리는 자리인 만큼, 사비(私費)로 식사대접을 드린다고 하여 참석자들은 박수로 감사를 표시하였다.

대종중 명예도유사·고문 초청 인사회



제23대 철수(澈秀)도유사는 4월 28일(화요일) 명예도유사·고문 상견례를 대종중 인근의 일식당 “해강”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명예도유사 3명중 상식(相式), 길순(吉淳) 명예도유사가 참석하였고 갑식(甲湜) 명예도유사는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였으며, 9명의 고문중에서 현수(鉉鉉), 현재(鉉採), 현덕(鉉德, 제정공파), 선철(璇澈), 광순(光淳), 일순(日淳), 동진(東振), 동은(東銀) 고문이 참석하고, 용수(龍水) 고문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였다. 철수 도유사는 인사말에서 “취임하여 20여 일 업무과약에 매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종중을 원칙이 지켜지는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되도록 초지일관 노력하고자 하오니 명예도유사님들과 고문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지도편달 있으시기 바란다.”고 하였다. 이에 참석자 모두가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박수로 환영하였다. 덕담을 주고받으며 점심식사를 함께하는 뜻 깊은 자리에 동은(東銀)고문께서 식사비용을 부담하여 화기애애(和氣靄靄)한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었다.

▶ 부도유사(副都宥司) : 10명

신 봉식(鳳錫)	文僖公派 都宥司	신 현문(鉉文)	表忠齋 都宥司
신 문철(文澈)	正言公派 都宥司	신 현덕(鉉德)	서울시 花樹會長
신 근택(根澤)	思簡公派 都宥司	신 용철(龍澈)	江原道 花樹會長
신 현대(鉉大)	齊靖公派 都宥司	신 형식(亨湜)	(前)光州·全南 花樹會長
신 동석(東錫)	典書公派 都宥司	신 방식(芳湜)	濟州道 花樹會長

▶ 감사유사(監事宥司) : 3명

신 권채(權彩)	郡守公派 都宥司
신 민철(民澈)	大田·忠南·世宗 花樹會長
신 현만(鉉晩)	京畿道 花樹會長

2020년도 1차~3차 재산관리위원회 연속 개최



6월 18일(목요일)11시 제1차 재산관리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제 23대 도유사로 취임한 철수(澈秀) 도유사에 의해 새로 구성된 4개 분과위원회 중 먼저 재산관리위원

회를 개최하여 도유사는 위원 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이어서 코로나사태로 업무가 지연되고 있지만 재산관리위원회는 시급하게 움직여 대중중의 재정상태를 개선해야 할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자신이 무엇을 얻을 것인가?”가 아니라, “대중중을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희생정신으로 평산신씨 대중중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점심식사를 사비(私費)로 대접해 드리겠다고 인사를 하였다.

회의진행을 이어받은 봉식(鳳湜)위원장은 대중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항이 재산의 통폐합과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성의 건물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 임무를 맡은 우리 재산관리위원회는 일체의 사리사욕을 버리고 다 같이 노력하여 자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위원회활동을 했다는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하며, 좋은 물건을 찾아내는 일에 서로 협조하고 물건이 찾아지면 다 같이 가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만장일치가 되면 결정을 하도록 하자고 당부하고 회의를 개최하였다.

아세아빌딩을 그대로 보유한 채 확보된 자금으로 새 건물을 구입할 것인지, 아세아빌딩을 팔아서 그 매각대금까지 합쳐 신규건물을 매입할 것인지에 대하여 진지하고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으며, 현덕(鉉德) 부위원장이 조사한 6~7건의 매입 후보건물들에 대해 설명을 들으며 질의응답과 토론이 이어졌다. 이미 오래전에 결정된 자산통폐합의 기본방향은 아세아빌딩을 매각한 후 신규건물을 매입하는 것임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우선 아세아빌딩의 매각을 추진함과 동시에 신규매입 건물의 수배를 진행하기로 의결하였다.

또한 위원들 모두 한목소리로 절대 사욕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다짐하였고, 조상님들과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반듯한 일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결의를 다지며 1차 회의를 산회하고, 7월 3일(금)의 2차 회의와 7월 13일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접수되는 물건들에 대해 검토와 분석을 계속하고 있다.

제1차 편집·종규위원회 개최



제1차 편집·종규위원회가 7월3일 오전 11시 대중중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개인사정으로 현관, 동완 위원

은 불참한 가운데 철수(澈秀) 대중중 도유사는 출석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배포한 종규개정 초안을 예시로 많은 연구와 토론을 거쳐 역사에 남을 종규가 마련되길 희망하며 종보 138호 이후의 축쇄판 발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표시하였다.

회의를 주재한 표균(彪均)위원장은 평산신씨대중중 규약 등의 종규에 대해 검토, 보완해야할 부분이 많다는 철수 도유사님의 말씀에 공감하며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보자고 개회를 선언하고, 위원 전원의 자기소개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대중중의 선거관리규정, 임직원 보수규정, 상벌규정, 재산관리규정 등의 검토도 필요하며, 우선 기존규약의 내용숙지가 필요하므로 기존규약을 열독, 숙독하여 차기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도록 하기로 하고, 타문중의 예를 수집하여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회의는 매월 첫째 화요일로 정해, 2차 회의를 8월4일(화요일) 오전 10시30분 갖기로하고 산회하였다.

제1차 장학·상벌위원회 개최



대중중 2020년 제1차 장학상벌위원회가 7월 8일(수)11시 대중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개최된 동 위원회는 23대 대중중 철수 도유사가 취임하여 다시 구성한 위원회로 9명분 모두가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 앞서 철수도유사는 위촉장을 각 개인별로 수여하고, 인사말에서 “장학생 및 표창자 선발은 기준과 원칙에 따라 선발 되어야 함으로 향후 선발시 철저한 심사로 적정한 종원이 선발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하면서 “오늘은 환영하는 의미에서 도유사가 사비(私費)로 점심식사를 준비하였다.”고 말하였다.

이어서 동석위원장(대중중부도유사겸 전서공파도유사)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반갑다는 인사와 함께 위원들에게 자기소개를 요청하고 돌아가면서 각자 소개를 한 다음, 본회의에서는 장학·상벌과 보완이 필요한 규약 등에 대하여 위원들간 열띤 토론을 전개하고, 먼저 장학생 선발 기준을 일부 개선(특별추천선발제:10%내)하였다. 또 상벌(賞罰)에 관련된 대중중 규약보완은 신중을 기하여 심도 있게 결과물을 내기로 하고 위원들이 카톡이나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 또는 논의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산회하였다.

제1차 제례·계보위원회 개최



대종중 23대 철수도유사 취임과 함께 새로 구성된 제례계보위원회가 2020년 7월 15일(수)11시 대종중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회의에 앞서 대종중 철수도유사는 모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인사말에서 대종중의 운영을 원칙에 입각하여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한다면서 위원들께서도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하고 부가적으로 현재 대종중의 운영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또 여느 위원회와 같이 대종중도유사는 오늘 점심식사는 사비(私費)로 준비를 하였다고 말하였다.

이어서 홍균 위원장은 위원들에게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다고 말하고 새로이 위원이 되신 승철(承澈, 정언공파 34世)위원을 소개하고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하였다. 이어서 홍균위원장은 준비하신 제례독촉법에 대한 유인물을 나누어 주면서 향사에서 독촉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위원들은 복창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위원들에게 어떤 분정이라도 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대종중 제례위원으로서 시조님 향사에서 완벽하게 봉행되도록 모두가 노력하자고 다짐하고 폐회하였다.

춘천묘역 전사청(典祀廳) 현판 교체



7월 1일(수요일) 오전 11시 춘천 장절공묘역의 전사청 현판을 교체하는 행사가 거행되었다.

2010년 3월 전사청 준공과 함께, 광순(光淳) 대종중 고문(당시 전서공파중종 도유사)이 글자를 쓴 현판이 현액(縣額)되고 전사청 준공의 고유제를 거행했으나, 이후 중종내의 공문화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부 집행부 인원이

당시 현판의 [典]자가 [興]자로 보일 수도 있다는 이유로 현판을 떼어내고, 과거의 전사청에 걸려있던 세로의 현판 글자를 집자(集字)하여 가로로 배열한 현판으로 교체한 것이었다.

지난 6월 16일의 210차 상임유사회의에서 본래의 현판으로 교체하는 안(案)이 만장일치로 의결된 바, 이날 대종중 철수(澈秀) 도유사와 광순(光淳) 대종중고문, 동은(東銀) 대종중고문, 동석(東錫) 전서공파도유사, 용철(龍澈) 강원화수회장, 현화(鉉和) 전서공파 총무, 현목(鉉睦) 강원도화수회 부회장, 대종중 전직원 등 10여명이 참석하여 현판교체 행사를 거행하였다.

2020년도 상반기 인터넷족보 수단신청서 접수현황

금년 상반기에 대종중에서 접수한 인터넷족보 수단신청서를 2020년 7월 1일자로 인터넷족보에 정상적으로 등재하고 수단비는 배분 비율에 따라 파별로 다음과 같이 지급하였다.

- 가. 총접수량 : 214명
- 나. 접수수단비 : 10,577,000원
- 다. 배분
 - 1) 대종중(30%) : 3,173,100원 (등재비 등에 사용)
 - 2) 파종중(70%) : 7,403,900원
- 라. 파별내역
 - 문희공파 5,864,600원 - 제정공파 251,300원
 - 한성윤공파 1,211,000원 - 온수감공파 77,000원

▶ 인터넷족보 수단 신청 방법(신규, 수정, 침삭 등)
종원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와 같이 파종중에 제출하면, 파종중에서는 취합하여 신청서와 증빙서는 우편 또는 인편으로 대종중에 제출하고, 수단비는 대종중지정계좌에 입금하면 된다. 대종중에서는 접수한 내용을 검토하여 지정회사에 등재의뢰 한다. 상반기(5월말)까지 접수분은 7월 1일자로, 하반기(11월말)까지 접수분은 익년 1월 1일자로 매년 2회 등재된다.

[始祖配享地 巡廻5回] 율리사(栗里祠)

충남 서천군 비인면(庇仁面) 성검로 287번길 16-1(栗里193)에 있는 율리사(중종도유사 신재식, 온수감공파도유사 겸임)는 조선조 철종(哲宗) 원년 서기 1850년 경술년(庚戌年)에 온수감공파 문중사우(門中祠宇)인 세덕사(世德祠)로 창건하고, 이듬해 신해년(辛亥年) 2월에 시조 장절공(壯節公) 신승겸(申崇謙) 장군을 주벽(主壁)으로 하여, 온수감공파(溫水監公派) 23세인 참판공 휘 철(澈)과 승지공 휘 오(澳), 형제분 등 3분만

을 위한 제향으로 봉행이 시작되었다고 하며, 평산신씨가 비인지역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고려 말, 조선 초기에 16세 신용(申龍)이 이곳에 은둔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진다. 신용(申龍)은 조선 건국에 반대하여 두문동에 들어갔던 온수감공파조 신기(申淇)의 아들로 그 후 신철과 신오의 후손들이 함께 옮겨와 살게 되면서 그 문족들이 번창하게 되었다.

그 후 사우는 1871년 고종 신미년에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인하여 훼철(毀撤)되었다가 1892년 임진년(壬辰年)에 사론으로 다시 설단(設壇)하였고, 1900년 경자년(庚子年)에는 사우를 율리사로 개칭하고 14세 한림공(翰林公) 휘 혼(琿)과 아들인 15세 대제학공파조(大提學公派祖) 휘 연(演)과 15세 온수감공파조(溫水監公派祖) 휘 기(淇), 두 형제분을 추배 하였으며 또 1918년 무오년(戊午年)에 역시 사론으로 중건하고 13세 진선공(進善公) 휘 현(賢)을 추배(追配)하여 총 7분의 위패를 모시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율리사는 1988년 8월 30일 충남문화재 303호 지정되었으며 매년 음력 3월 중정일(仲丁日)에 온수감공파 종중에서 향사를 주관하고 있다.

건물배치는 사우인 율리사가 내삼문과 담장으로 둘러져 있고, 정면 3칸 측면 1칸의 방풍벽 맞배지붕이며 안에는 장절공 신승겸 시조님의 영정과 7위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다. 강당은 1967년 중수된 것으로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이다. 강당 옆에는 1929년 건립된 율리세덕사유허비(栗里世德祠遺墟碑)가 세워져 있다.



파종중 · 화수회 소식

한성윤공파종중 정기총회 개최



한성윤공파 종중(도유사 신규철)에서는 2020년 5월 16일(토) 11:00시 서천군 서천읍 둔덕리에 있는 종중재실(장령공회관)에서 종원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2020년도 정기총회는 당초 3월에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발병으로 회의를 미루어 오다가 임원들의 임기도 있음에 따라 계속 연기만 할 수 없어서 부득이 질병확산에 따른 대비를 철저히 갖추고 개최하게 되었다. 이날 총회에는 특별히 참석하여 주신 대종중 신임 철수도유사님을 비롯하여 동진 한성윤공파명예도유사, 온수감공파도유사 재식, 용산단도유사 현대, 대전충남 화수회 민철, 광주전남화수회 형식, 현극 서천군화수회 회장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축사와 격려를 해주셔서 많은 박수로 응답하였다.

본 회의에서는 대부분 유인물로 대체하고, 주요사항인 감사보고를 비롯하여 사업계획서, 정관개정 등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또 임원선출에서는 현 규철 도유사가 유임되고, 상임 부도유사에는 동수, 부도유사에는 계만, 동진, 상봉, 진섭 또 감사유사에는 형식, 장섭, 총무유사에는 주철 등이 유임되거나 선임되었다.

사간공파 판원사공 종중 향사 봉행

(思簡公派 判院事公 宗中 享祀 奉行)

사간공파 판원사공 종중(도유사 근택)에서는 2020년 4월 26일 11:00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산 81번지·승록대부좌찬성 판중추원사공(崇祿大夫左贊成判中樞院事公) 휘 경종(諱·敬宗)묘소에서 간소(簡素)한 제수(祭需)와 맑은 술을 올리는 향사(享祀)를 봉행(奉行)하였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질병(疾病)으로 인하여 부득이 많은 자손(子孫)들이 참석(參席)할 수 없어 임원(任員)들과 일부 자손(子孫)들만 참석하였다.

이날 향사는 승록대부 좌찬성판중추원사공 휘 경종(崇祿大夫左贊成判中樞院事公 諱 敬宗), 호조참의 금부도사공 휘 수지(戶曹參議禁府都事公 諱 守祉), 형조도관공 휘 수복(刑曹都官公 諱 守福), 선약장군공 휘 영보(宣略將軍公 諱 永保), 장락원첨정공 휘 영채(掌樂院僉正公 諱 永綏)의 향사로서 초헌관에는 동하 매곡종중(東夏 梅谷宗中), 아헌관에는 용철 구룡종중(龍澈 九龍宗中), 종헌관에는 민철 수인종중(民澈 守仁宗中), 축관에는 장용 옥포종중(長容 玉浦宗中), 도집례에는 근택 도유사가, 봉향봉로에는 영섭 매곡종중(榮燮 梅谷宗中), 봉작전작에는 형섭 사서공종중(亨燮 思書公宗中), 사준에는 동운 참의공종중(東雲 參議公宗中), 알자는 현구 순천공종중(鉉九 舜天公宗中), 직일 관섭 동

막공중중(冠燮 東慕公宗中) 등을 분정하고 엄숙하게 봉행하였다. 비록 자손들은 많이 참석하지 못했으나 정성은 간절했다. 12시에 제사(祭祀)를 마치고 식당으로 이동(移動)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근택도유사의 인사말과 회계보고가 있었다. 食事後 커피타임으로 끝나면서 조상님(祖上任)의 음덕(蔭德)으로 모두 무사(無事)하길 바라며 가을에 사간공파조님(思簡公派祖任)의 향사(香祀)에 10월5일)때에 다시 만날 것을 期約하고 헤어졌다.

전서공파(典書公派) 종중 향사(享祀) 봉행 및 정기총회 개최



전서공파종중(도유사 신동석)에서는 2020년 4월 26일(일) 12시 전서공 휘 호(15世, 典書公 諱 灑)파조의 단(壇)이 있는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무주동(빛고개)에서 종원 9명이 참석하여 향사를 엄숙하게 봉행하였다. 코로나19 질환에 따른 감염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갖추고 행사에 만전을 기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광순(光淳) 대종중 고문의 집례로 초헌관에는 동석(東錫) 도유사, 아헌관에는 청평에 현기(鉉琦), 중헌관에는 충무 현화(鉉和), 축문은 광순고문, 집사는 도촌 동휘(東輝)와 청평 명석(明錫) 등이 맡아 경건하게 봉행하였다.

봉행 후에는 2020년도 정기총회를 열어 작년도 결산보고를 하고 모든 사항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며 또 오찬을 함께하면서 종중 발전에 대한 답소를 나누면서 뜻있는 시간을 보내고 내년을 기약하고 아쉬운 발길을 돌렸다.

2020년도 서울시화수회 정기총회

지난 5월 28일(목) 오전 11:30분 종로3가 한일장(3층)에서 2020년도 제49차 정기총회를 3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용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 하였다. 이날 현덕 회장은 내빈 소개를 한 다음 표창패(신재원, 신효식)와 공로패(신현진, 신승)를 수여하고 회원들과 같이 큰 박수로 축하하였다. 이어 3년 임기를 마치는 현덕 회장의 간단한 인사말이 있었으며, 또 특별히 참석하신 신

임 철수 대종중 도유사는 격려사에서“회수회의 중심이 되는 서울시 화수회가 좀 더 활기차게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앞으로 우리 대종중도 모든 업무를 원칙에 입각해서 이끌어 가겠다.”고 말하였다.

이어서 2019년도의 감사보고와 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 등은 모두가 원안대로 회원들의 만장일치 박수로 처리되었으며, 임원선거에서는 현덕회장을 비롯한 현재의 임원 모두가 유임되었음을 모두가 박수로 동의하였다.

본회를 마치고 모두가 오찬을 같이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답소를 나누고 또 현덕회장의 건배 제의로 더욱 단합된 분위기로 이어져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준비한 기념품을 나누면서 해산하였다.



전라북도 화수회 정기총회 개최



2020년 5월 9일(토) 오전 11시,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417-187에 위치한 전라북도 화수회관(3층)에서 제 52차 전라북도 화수회 정기총회가 문식 회장 외 54명의 종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 되었다. 특히, 대종중 철수 신임 도유사께서 축하 화환과 함께 직접 참석하여 회의장은 더욱 축제 분위기였다.

이어진 회의에서 문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오늘 우천의 일기에도 불구하고 많은 종원들께서 참석하시어 성원을 이루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특히 대종중 철수 도유사께서 직접 참석하심에 감사의 뜻으로 환영인사를 요청하자 종원 전원이 힘찬 박수로 환영 하였다. 또한 3년의 회장 임기를 마침에 따라 재임기간 종원 화합과 시·군화수회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맡은 바 소임을 수행하였으나 종원 여러분께 만족한 성과를 드리지 못하고 임기를 마치게 되어 아쉽고 죄송스럽게 생각

한다는 이임인사를 하였다. 이어 대중중 철수 도유사는 격려사를 통하여 본인이 대중중 도유사 취임 후 첫 번째로 전라북도를 방문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종원 여러분을 직접 만나 뵙고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신 문식 회장님과 종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는 인사와 함께 재임기간 각 시·도 화수회 및 파종중 활성화에 맡은바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하고 인사를 마쳤다.

이어서 홍균 명예회장, 현상 고문, 동연 장군단 도유사의 축사가 있는 뒤, 도석감사의 감사보고와 2019년 결산보고 및 2020년 사업계획(안)은 원안대로 통과 시키고 임원선거에서는 참석 종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정차(正次, 정언공파33世)종을 차기(제18대)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신임 정차회장은 취임인사를 통하여 전임 회장님에 대한 재임기간의 공로를 높이 치하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인근 주택지역 재개발로 인한 회관이전 등 향후 산적한 중무 현안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 하라는 명령으로 수락하고 부여받은 임기동안 화수회 발전과 종원 화합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취임 회장의 종기(宗旗) 인계인수가 이어지고 종원 일동은 힘찬 박수로 환영하였다. 기타 토의사항 및 공지사항을 마친 뒤 12시 20분에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였다.

광주·전남 화수회 정기총회



광주전남화수회(회장 형식)은 2020년 5월 23일(토) 오전 10시 30분, 광주광역시 동구 대의동 '해뜨는집'에서 종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제65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대중중 철수 도유사님의 축하 화환과 대형 프랑카드로 식장을 밝게 장식한 가운데 사현 사무국장의 사회로 1부 기념식과 2부 오찬회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간단한 국민의례와 조상에 대한 묵념, 내빈소개와 종원간 인사가 있었고, 이어서 형식회장은 고흥군화수회 회장 배식宗, 광산구화수회 회장 성삼宗, 한성운공파 선원공 승중宗 등 3분에게 공로표창장을 수여하고 종원들의 박수와 함께 격려하였다.

형식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화수회가 1956년도에 창립하고 오늘에 이르기 까지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헌신적으로 이끌어 주신 역대 회장님과 지역화수회장을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머리숙여 감사드린다고 말

하고 숙원사업이었던 장군단 성역화사업 1차 공사를 마무리하였으나 2차공사도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많은 협조를 당부하였다.

특히 이날 특별히 참석하신 철수 대중중도유사는 65회를 맞이하는 광주전남화수회가 다른 타· 시도 보다 역사가 깊고 종원 모두가 적극적임을 볼 수 있다는 등의 격려사가 있었고, 또 평산신씨는 타성과 달라야 한다는 형철 명예회장의 격려사도 계속 이어졌다.

본회의에서는 사무국장의 중사보고, 현철·영결감사의 감사보고, 재무보고 등 모두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으며 임원선출에서 차기회장으로 상남회장을, 감사에는 동식, 흥섭종을 종원들의 만장일치로 선임하였다.

이임하는 형식회장에게는 그간의 노고에 감사하고 격려하고자 종원들의 크나큰 박수로 보답하였다.

[성금 수 · 지 내역]

이름	주 소	성금품(원)	이름	주 소	성금품(원)
대중중		200,000	영결	광주전남화수회 감사	100,000
장군단 종중		500,000	용기	광주전남화수회 부회장	50,000
용산단 종중		500,000	훈철	광주전남화수회 부회장	50,000
덕양서원		500,000	경복	광산구화수회	50,000
여수시 화수회		200,000	상길	광주청장년회	50,000
해남군 화수회		200,000	정욱	NG TV	50,000
선원공 종친회		100,000	사현	광주전남화수회 총무	50,000
광산구 화수회		100,000	석원	화순	50,000
형철	전회장, 명예회장	100,000	소계		450,000
현중	전회장, 명예회장	100,000			
현년	전회장, 명예회장	100,000	수입		4,650,000
락현	전회장, 명예회장	100,000			
현덕	전회장, 명예회장	100,000	지출	총회자료책자 70권	250,000
권채	지문위원	100,000		기념타올 100매	350,000
명식	전용산단 도유사, 지문위원	100,000		프랑카드	20,000
창문	목포화수회 회장	100,000		시상상품권(3명)	300,000
재열	무안군화수 회장	100,000		식대(정기총회)	960,000
언창	영광군화수회 회장	100,000		우편발송, 문구류	30,000
용환	전 장군단 총무	100,000	계		1,910,000
재준	광주전남화수회 부회장	100,000			
배식	고흥군화수회 회장	100,000			
현식	담양군화수회 회장	100,000	수입계		4,650,000
흥섭	덕양서원부도유사	100,000	지출계		1,910,000
동원(석연)	광주	100,000	잔액		2,740,000
동수	광주전남화수회 부회장	100,000			
동연	장군단 도유사	100,000	축하화환	대중중 철수 도유사	1점
기안	광산구화수회장	100,000			
소계		4,200,000			

평산(경백)문화재단 창립총회 행사



부산경남화수회의 뜻있는 종원들은 올해 6월 27일 오전 11시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소재 창원호텔 중국관에서 재단법인 평산(경백)문화재단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평산(경백)문화재단의 설립취지는 평산신씨의 발전과 단합을 도모하고, 사천 경백사에 배향된 선현들의 사상과 정신 계승발전, 충효사상과 선비정신 함양, 경백사 등 유적지 성역화사업, 후손들의 장학금지급 및 인재양성 등의 사업을 달성하는데 있었다.

이날 창립총회 행사에는 부산, 창원, 사천, 거창, 산청에 거주한 종원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에 이어 정관제정을 한 후, 임원선출을 하였는데, 초대 이사장 윤균(32세손, 전 창원화수회장), 상임이사 5인 유균(경백사도유사), 상수(부산경남화수회장), 현기(전 거창화수회장), 중철(전 창원화수회장), 대철(창원화수회장), 감사 2인 만석(전 사천화수회장), 재화(거창화수회장)이 선임되었고, 윤균 초대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친목과 단합을 최우선과제로 하고 분기별 1회 모임을 하자고 제안하는 것으로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한편 이날 행사를 축하하기 위하여 대중중(도유사 철수), 표충재(도유사 현문), 경백사(도유사 유균), 부산경남화수회(회장 상수) 등에서 대형화환을 보내 축하하였다.

신준식(34세) 자생한방의료재단 명예 이사장

- 한성운공파종중 발전기금으로 2,000만원 쾌척(快擲) -



지난 6월 5일 신준식(申俊湜 한성운공파 34세) 박사는 동생인 민식(敏湜)잠실자생한방병원장을 대중중에 방문하도록 하여 한성운공파종중에 2,000만원을 성금으로 쾌척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6월 10일 대중중 철수도유사와 함께 충남서천에 있는 한성운공파종중(도유사 奎澈, 34세)을 방문하여 약속한 금액을 헌성하였다.

신준식 박사는 자생한의원을 1990년에 설립하여 현재는 의료법인 자생한방의료재단 명예이사장으로, 수술 없이 디스크를 치료하는 추나 요법을 개발한 한국을 대표하는 명의이고, 전 세계에 알려진 유명인이다. 그 간 한의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06년 국민훈장 동백장, 2015년 국민훈장 모란장 등을 수상한 자랑스러운 평산인(平山人)이다.

이날 방문에는 민식병원장을 비롯하여 재단상무, 총무부서 직원과 대중중 고문이신 동진, 대중중 총무부장 현기, 종원 등 여러분이 참석하여 파조 휘 하(派祖, 諱 夏)의 단(壇)에 참배하고 서로 감사의 말씀과 반가움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신준식 자생한방의료재단 명예이사장에 대해서는 동진(東振)대중중 고문의 상세한 글을 다음종보에 특집으로 실을 예정이다.

종원동정



제 21대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합니다.



신원식(申源湜)

- 1958년생 경남통영 출신(62세)
- 육군중장 예비역 및 전 수도경비사령관
- 국민대 경영학 박사
-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 문희공파 34세



신영대(申榮大)

- 1968년생 전북군산 출신(52세)
- 전 노무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 전북대 경영학 박사
- 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시)
- 제정공파 35세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취임을 축하합니다.



신상해(申相海, 제정공파 35세)

- 1956년생(64세)
- 2018년 6월 13일 8대의원 당선(재선)
- 부산대 공학석사
- 협성문화재단 이사

변호사(辯護士) 시험 합격 신영주(申英珠, 判事公派 36世)



경북 영덕군 지품면 북곡리가 고향으로, 祖父 병상(炳祥 34世), 祖母 김귀식(金貴植)님의 넓은 사랑과, 아버지 진기(璿基 35世), 어머니 주경순(朱慶順)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 1남1녀 중 장녀로 태어나 총명하고 지혜롭게 자랐다.

宗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금년에 실시한 제9회 변호사 시험에서, 합격(발표 4월)의 영광을 안았다.

宗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녀딸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앞으로 더욱 효도하겠다고 하면서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하였다.

또 앞으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도 기여할 수 있는 일원이 되어 평산신씨의 가문을 더욱 빛낼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신세원(申世源, 판사공파 31世)



정수(正洙) 전 대종중 도유사
현충원 장군묘역 참배

세원 전 판사공파중종 도유사는 현충일을 맞아 국립현충원 장군묘역(527호)에 묻힌 故 전 대종중 정수(正洙)도유사 묘전에 헌화와 배례하고 고인을 기린 시를 보내왔다.

“대한민국 장군으로 신명(身命)을 바쳐
조국(祖國)을 수호(守護)하시고
대종중에서 송조돈목(崇祖敦睦) 하시던 도유사님!
생전에 인자(仁慈)하시던
그 모습 그리워
임 계신 곳 찾아서 통곡합니다.
임이시여 민족(民族)의 성역(聖域)에서
평안히 영면(永眠)하소서”

조선4대문장가

상촌(象村) 신흠(申欽)과 문학②

신 표 균 (시인, 진사공파중종 도유사)

☞ 185호에서 이어집니다.

3. 상촌의 시

‘시(詩)는 형이상자(形而上者)이고 문(文)은 형이하자(形而下者)이다’ 그는 시 쓰기는 막연히 보는 ‘견(見)’의 행위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상事象*을 꿰뚫어 보는 ‘관(觀)’행위로 시작된다고 설파하였다. 세상의 모든 작가는 가공업자이다. 눈이 좋은 작가에게 세상은 다이아몬드 원석이 굴러다니는 보화밭이다. 상촌의 시 네 편을 감상 해보자.

(* 필자 주)

〈其三 기삼〉

似夢非夢人間世 (사몽비몽인간세)
꿈 같으나 꿈 아닌게 인간세상이요
不醉而醉人間人 (불취이취인간인)
취하지않고서 취한 척 하는 인간들
醉兮蒙兮誰是真 (취혜몽혜수시진)
취했는가 꿈꾸는가 어느게 진짜인고

세상의 인간들이 두 얼굴로 살아감을 에둘러 고도의 계산된 표리부동과 양면성의 추함을 형상화 한 시다. 취한 척 본색을 감추고 자신의 안위만을 구가하는 사회는 더 이상 미래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세태를 꼬집은 풍자시이다.

〈飲酒 음주〉

非者不自非(비자불자비) 그른 자도 자신을 그르다 하지 않는데
是者誰謂是(시자수위시) 옳은 자를 그 누가 옳다 하리
因之互傾奪(인지호경탈) 서로 저들끼리 경쟁을 벌이다
昔譽而今毀(석예이금훼) 어제는 추어대고
是非毀譽間(시비훼예간) 오늘은 헐뜯거나 기리거나
悠悠且已爾(유유차이이) 유유히 그대로 내버려 둘 뿐이네
猶難土成綺(유난사성기) 오히려 사성기에 비난 받지 않았던가

그릇된 자들도 자신의 그릇됨을 인정치 않는다. 옳은 자들도 나서서 옳다고 하지 않는다. 사회는 무너지고 상호간의 경쟁이 극에 치달으며 비난하고 헐뜯는다. 노자와 사성기의 고사를 예로 들어 상촌 자신이 이미 이런 세상에 대하여 꿰뚫어 보고 있음을 묵시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노자의 처세관이 한 시대의 선각자적 지식이었다면 상촌 자신도 스스로를 지인이라 자부했던 것이다.

본문에 나오는 사성기(士成綺)는 춘추시대 노자의 제자로 일찍이 노자에게 몸과 마음을 수양하는 방법에 대해 물어 보았다. 도교에서는 그와 더불어 윤희, 경상초, 남영주, 윤분, 신견, 최직, 백구, 열어구, 장주 등을 ‘현무십자(玄無十子)’로 부른다.

〈勸農 권농〉

虛則必盈(허측필영) 비었다 하면 반드시 차지만
盈不可久(영불가구) 가득 차도 오래 가진 못하네
天地無私(천지무사) 하늘과 땅은 사되지 않고
陰陽相偶(음양상우) 음과 양은 서로 짝이 되는 것이네
唯士守道(유사수도) 오직 선비라야 도를 지키기를
若農易畝(약농역무) 농부가 전답 가꾸 듯하는 것인데
世已溺矣(세이익의) 세상이 이미 도탄에 빠져 버렸으니
疇能援手(주능원수) 누구라서 그것을 손 뻗어 건질손가

시 제목이 권농이고 농부가 나온다고 해서 이 시가 글자 그대로 권농의 의미로 직역해서는 안될 것이다. 세상이 이미 도탄에 빠졌음을 한탄하며 선비의 도를 농부의 마음과

같이 하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농심(農心)을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答龐參軍 답방참군〉

蒔花藝竹(시화예죽) 꽃모종 하고 대나무 심고
左圖右書(좌도우서) 왼편에는 그림 바른 쪽에는 책
萬事無求(만사무구) 온갖 일 더는 바랄 게 없고
一室自娛(일실자오) 내 방에서 혼자 즐길 뿐이네
雲霞爲侶(운하위려) 구름과 노을을 벗 삼아
麋鹿與居(미녹여거) 고라니 사슴과 더불어 살면서
祛爾健羨(거이건선) 부러워 하는 마음 버리고
聊樂我慮(요락아려) 내 집을 내가 즐기리

꽃을 심고 대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청정무구, 절제하는 삶을 이룸이다. 세상에 더 바랄 것 없이 홀로 즐기는 삶이다. 꽃과 대나무를 심고 책을 읽으며 구름과 노을, 고라니와 사슴을 벗 삼아 안분지족의 삶에 빠져 든 고고한 선비의 일상으로 유배지에서의 격리된 은둔의 세계를 엿볼 수 있다. 세속적 부러움일랑 모두 떨쳐 버리고 난 뒤에 얻는 기쁨인 것이다.

상춘은 1623년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관직에 복귀하여 이조판서로 임명되고 그해 7월에 우의정에 발탁된 이후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에 올라 국정을 통괄 하다가 1628년 6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정묘호란 때는 좌의정으로 세자를 수행하여 전주에 피란을 하고 그해 9월엔 영의정에 올랐으나 이듬해에 졸하니 문정공으로 시호가 내려졌다. 사후 1651년(효종2년)에 인조의 묘정에 배향되었고 도포서원에도 배향되었다. 지금도 후손들은 종가에서 매년 음력 6월28일 불천위 제사를 모시고 있다.

신흙의 자는 경숙, 호는 현현, 상춘, 현웅, 방옹 등인데 상춘이 대표적으로 쓰이고 시호는 문정공이다. 그는 평산 신씨의 족보를 이전에 있던 평천보 등을 참고하여 편찬하였고 만아들 동양위 익성(선조 임금의 부마)에 의하여 1636년(인조14년) 병자년에 금속활자본으로 인쇄하여 최초로 발간하는데 기여 함으로써, 조선시대 인쇄 문화를 개척하는 선구자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4. 인조 임금의 상춘의 죽음에 대한 애도의 글

“... 부음이 알려지며 임금이 크게 슬퍼하여 사흘 동안 조회를 폐하고 전교하여 이르기를 영의정이 선조의 구신으로 충성을 다하여 국사를 보필하였는데 방운이 불행하여 이러한 어진 정승을 잃었으니 내 심히 놀라며 슬퍼하노라 하고 유사로 하여금 상장의 수송을 예식대로 하게 하고 중사를 보내어 부조하며 도승지를 보내어 그 유고를 조문하고 예관을 보내어 치제케 하였으며 왕세자는 관료를 거느리고 외당에서 애도를 표하고 또 상차에 나아가 예에 따라 조곡하였다...” (-문정공 신흙 신도비명 부분).

〈상춘 신흙 연보〉 (1566~1628) : 생략 - 끝 -

신표균 약력

경북 상주 출생 /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문학예술학과 졸업(문예창작 전공)
한국문인협회 달성지부 회장 역임(현 고문) / 한국문인협회 대외협력위원(현)
비영리법인 도동시비동산운영회 회장(현) / 『心象』신인상 등단 시집 : 『아레미로 본 세상 외
논문: 『김명인 시의 길 이미지 연구외 / 대통령 표창: 국민정신교육 유공

[東陽尉 翊聖 기행문 ④]

금강산 유산기(遊山記)

☞ 증보184호에서 이어집니다.

▶ 부용호(芙蓉湖)는 방백 정하숙(鄭下叔)이 사는 곳이다. 호수가 외금강 아래에 있어서 경치가 뛰어날 뿐 아니라 그 주위의 골짜기도 깊숙하고 조용하면서도 씨 뿌리고 모내기 할 만한 땅이 있어 은자들의 은거지가 될 만하였으니 가마를 빌릴 수 없는 것이 한스럽다.

감호(鑑湖)는 사방 3, 4리이고 물이 맑아서 터럭까지도 환히 비추고 앞으로는 구선봉을 마주 대하여 금강산의 향로봉과 백담동 같은 아름다운 경치를 갖고 있다. 그 아래는 규모가 비슷비슷하여 왼쪽에는 양사언이 살던 옛 집이 있다. 촌락이 숲 사이에 숨어 있는 것이 마치 그림 속에 있는 듯하다. 오른쪽에는 키가 큰 소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바닷가를 가릴 정도였다. 그 소나무 너머에 사봉이 하늘을 향해서 우뚝 서 있어 옥같이 보인다. 호숫가에 있는 정자는 토호였던 정유(鄭維)가 세운 것이라고 한다. 바닷가에 호수가 많기는 하지만 당연히 이 감호가 제일이다.

간성(杆城)으로 가는 길에서 바다 갈매기 수천 마리가 떼를 지어서 물가 모래밭으로 내려앉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아주 기이하였다. 이리저리 훑어보는 사이에 굽이진 해안으로 나오니 어가(漁家)들은 해안에 의지하여 있고 아녀자와 아이들이 섞여 앉아 있는 가운데 언덕같이 쌓아놓은 물건이 있는데 바로 잔물고기들이었다. 갈매기떼가 와서 채가도 꺼리지 않았다.

동해의 거룻배는 통나무를 파내어 만드는데 너댓 사람이 탈 수 있으니, 농어를 잡는 것으로 생업을 삼는다. 해가 뜨면 돛을 펼치고 나가 순식간에 보이지 않게 되었다가 오후 서너시쯤 하늘 밖 저쪽에 한 점이 나타났다가 잠깐 사이 물가에 닿으니 정말 가볍고 빠르기가 나는 듯하였다. 선대(仙臺)와 능파정(凌波亭)은 모두 해상에 있는 불거리인데 표연한 모습이 세상을 버리고서 홀로 서 있는 듯한 의취가 있다.

영랑(永郎)이라고 하는 이름은 단서에 쓰여 있다. 금강산에도 영랑정이 있고 고성에도 영랑호가 있으며 간성에도 영랑호가 있는데 영랑이라고 하는 이가 누구이고 또 언제 사람인지 모른다. 영동 사람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신선의 부류라고 한다. 고성의 호수는 그윽하고 간성의 호수는 더욱 맑고 시원스런 풍경을 갖고 있다. 소나무숲과 암석들이 사람이 살지 않는 곳 같으며 반나절만이라도 돌아다니면 영랑을 만날 것만 같다.

고성의 수석이 기이한 곳들은 다 쓸 수 없을 정도이고, 현종암(懸鐘巖)은 마치 엮어놓은 종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 그 안이 벌집 같이 텅 비어 십여 명이 들어갈 수 있으니 조화옹의 교묘한 솜씨를 알 수 있다.

선유담(仙遊潭)은 원래부터 신령스런 곳이다. 내가 피곤하여 소나무 뿌리에 기대어 있는데 꿈에서 옛옷과 관을 쓴 사람과 즐겁게 선(仙)과 불교의 일들에 대해 말하였다. 잠에서 깨어도 여전히 그 이야기가 기억나니, 기이하다.

열산호(烈山湖)는 바닷가에 있는데, 관동에서 제일 크다. 넘실대는 물결을 바라보면서 타고 나갈 배가 없음을 안타까

위 하였다.

명사(鳴沙) 수백 리를 가마를 타고 가기도 하고 작은 누각 같은 데서 걸터앉아 있기도 하는 등 마음에 따라서 가기도 하고 쉬기도 하였다. 처음 고성을 빠져나왔을 때 길을 가다가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앉아서 쉬니 행차가 더뎠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 경치가 뛰어나 모두 다 감상할 겨를이 없을 정도였다. 매향포(埋香浦), 우두대(牛頭臺), 화진포(花津浦) 등 몇몇 곳은 경치가 더욱 기이하였다.

芙蓉湖鄭方伯下叔所卜。湖水在金剛之外山下。不但景致奇勝。洞天幽邃。頗有種黍蒔稻之地。足爲隱者棲遯之所。恨不得稅駕焉。鑑湖方數里。清澈可鏡毫髮。前對九山峯。宛是金剛之香爐百塔諸勝。其下傑構參差。左有楊蓬萊舊業。村落隱映林間如畫圖。右有長松。捍蔽海門。松外沙峯特立干霄。望之如玉。據湖而亭之者。土豪鄭泂云。海上固多湖。當以此爲第一。扞城路上見海鷗千群下汀。意甚異之。顧眇間。出曲渚。漁家依岸。婦幼雜坐。有物如丘阜。卽細魚也。鷗群攫之無忌。東海躑躅。剗木爲之。可容四五人。以釣巨口魚爲業。日出便張帆而出。瞬息不見。晡時一點從天外來。俄卽泊岸。可知其輕快飛。尙臺凌波亭。皆海上勝賞。飄飄有遺世獨立之意。永郎之名。紀之丹書。金剛山有永郎岫。高城有永郎湖。扞城又有永郎湖。所謂永郎者。不知何許人。亦不知年代。嶺東人傳之爲眞僊者流。高城湖幽絕。扞城湖尤清遠爽塏。松林巖石。殆非人境。遺遙半日。庶幾與永郎遇。高城之水石奇處。不可殫記。而懸鐘狀如覆鐘。而其中虛缺如蜂窩。可容十餘人。足見造化之巧。僊游潭自是靈境。余倦倚松根。夢與古衣冠人劇談僊事。覺來猶能記其語。異哉。烈山湖際海。而在關東最鉅。望之渺瀰。恨無舟楫以泛之。鳴沙數百里。或以軟輿。或跨小衛。隨意行止。初出高城。途中遇會心處。便坐憩。行爲遲遲。前路所經。愈往愈勝。不暇應接。埋香浦。牛頭臺。花津數處爲尤奇。

▶5. 강릉에 이르다

9월 13일

청간정(淸澗亭)에 이르렀다. 환한 달빛과 바다 파도가 서로 넘쳐흐르고 하늘에는 구름조차 없어 대낮같이 밝았다. 이에 내가 만경대에 올라 돌을 베고서 누웠더니 밤이 깊어지자 서늘한 이슬이 옷을 적시었고 맑은 기운이 뼈까지 스며들었다. 노복에게 만경대 아래에서 피리를 불도록 하였는데 어룡이 모두 솟아 올라올 것만 같았다. 이 밤, 이 달을 천하가 공유하는 것이지만 나처럼 득의해서 바라보는 이도 없을 것이다.

청간정은 아주 바다 가까이에 있어 사나운 파도가 뜰까지 칠 때면 그 소리가 아주 웅장하였다. 잠조차 이루지 못하고 있으니 당나라 사람이 시에서 '조수(潮水) 소리는 처음 온 나 그네를 근심스럽게 하는구나.'라 한 것이 사실이었다.

청간정 기둥에 비스듬히 쓰여진 글자 20개가 있는데 소재(蘇齋) 노수신(盧守愼)이 나그네가 되었을 때 쓴 것으로 그 후 사람들이 새겨 넣었는데 그 세월을 헤아려보니 소재의 나이 23세 때 쓴 것이다.

명사라고 하는 것은 모래를 밟았을 때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데 관동 수백 리에 걸쳐 그렇지 않은 곳이 없다. 해당화가 그 위에 줄지어 피면 마치 담요를 펼쳐놓은 듯, 비단 장막을

둘러쳐 놓은 듯하다. 가을이 깊어지면 금앵도 같은 열매를 맺는다.

바닷가의 길이 모두 명사이기는 하지만 드문드문 바윗길도 있는데 반드시 파도 가운데서 돌출하여 대를 이루니 하나도 평범한 것이 없다. 평지에는 반드시 푸른 소나무들이 울창하게 푸른 일산 같이 수백 리에 뻗어 있어서 사람들은 모두 소나무 아래로 다닌다. 한여름에도 시원한 기운이 있다.

천후산(天吼山)은 양양(襄陽)에 있다. 골짜기와 산봉우리가 금강산과 나란히 일컬어질 만하다. 하늘을 향해 곧바로 솟아 있으면서 크지는 않지만 이름난 가람이 많은 정토(淨土)라서 암자를 짓고 사는 고승들이 많다고 한다.

내가 일출을 세 군데에서 보았었는데 그 중 해산정에 머문 것이 가장 길었으나 비가 자주 와서 세 차례만 보았을 뿐이다. 청간정, 낙산사(洛山寺)에서는 모두 맑게 개였었는데 낙산사에서 본 것은 더욱 대단하였다. 세상에서 낙산의 일출을 일컫는 것도 연유가 있도다!

양양의 수령이 낙산사 이화정(梨花亭)에서 내게 술을 대접하였다. 술에 반쯤 취하자 의상대(義相臺)로 자리를 옮겼다. 몇 개의 점이 저쪽 하늘에서 오는 것이 보였는데 마을 사람들의 말로는 고깃배가 도착한 것이라고 하였다. 잠시 후에 하얀 돛이 물가에 닿아 바다의 진미를 제공하여 실컷 술을 마셨다. 자리에 있던 어린 기생이 송강(松江) 정철(鄭澈)의 관동별곡(關東別曲)을 불렀는데 매우 맑고 아름다워 듣노라니 정신이 새로웠다.

상운역(祥雲驛)의 유객당(留客堂)이 자못 깨끗하였다. 뜰가의 오죽은 울창하여 사랑할 만했다. 한 쪽은 바다로 이어졌는데 키 큰 소나무들이 수십 리에 뻗어 있으면서 흰 모래 위에 그늘을 드리웠으니 관동의 명소이다. 역관이 배 다섯 개를 가져왔는데 그 크기가 여러 되나 되는 바가지만 하였다.

강릉의 경계로 들어가니 지세가 매우 넓고 마을은 풍요로웠다. 관란정(觀瀾亭) 아래 푸른 소나무가 시냇가를 따라서 십리에 펼쳐져 있었다. 때는 깊은 가을로 해상의 가을빛은 매우 더디게 비추었다. 아주 울긋불긋한 붉은 잎새들이 볼 만하였다. 정자에는 지어놓은 시들이 벽에 가득하였는데 모두 벼슬아치들의 시였다. 세월을 따져보니 5, 60년이나 되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자도 있었다. 아! 세상의 유명한 벼슬아치들이 헛된 성명을 흠쳐 한때에 드날리지 않음이 없으나 죽고 나서 후에 이름이 일컬어 지지 않음이 이와 같으니 슬프도다.

우두대가에는 단정하게 단장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서 가보니 강릉에 적을 두고 있는 기생 옥랑(玉娘)이었다. 젊었을 때 평강(平康)에서 같이 있다가 보지 못한 지 십여 년이 되었다. 옛날에는 머리 땅은 어린 기생이었는데 나이가 든 모습이었다. 그녀도 내 수염과 머리를 보고서 놀랐다.

강문교(江門橋)를 건너 호숫가 숲 사이에 은근히 보이는 누각을 바라보니, 붉게 칠해져 우뚝 솟아 올라온 것이었다. 말을 타고 가서 사립문을 두드려 보니 정자는 비었고 주인은 없었다. 뜰가에 있는 푸른 오동나무와 쪽 뺨은 대나무는 사람의 뜻을 아는 듯하였고 안팎의 호수와 바다가 기이함을 서로 뽐내는 듯하였다. 때마침 해가 기울어 석양이 호수에 물들었고 바다의 파도는 하늘 끝까지 맞닿아 고요한 듯하였다. 해상에서 제일 가는 곳이었다.

九月十三日。到清澗亭。月華與海濤相盪。天無纖翳如白晝。余迺登萬景臺。枕石而臥。夜久涼露沾衣。清氣襲骨。奚奴從臺下吹簫。魚龍皆聳。此夜此月。天下共之。亦無如我得意看。清澗亭最近海濤喧打庭際。聲甚壯。夢寐不成。唐人詩云潮聲偏懼初來客。實際也。清澗亭柱間有斜行廿字。卽盧蘇齋爲游客時書也。後人刻之。考其歲月。蘇翁廿三歲時書也。所謂鳴沙者。踏之琅琅有聲。關東數百里。蓋無不然。海棠花羅生其上。如鋪氈如錦障。秋深結子如金櫻子。海上路皆鳴沙。間有巖逕。必突出波心爲臺。無一等閑。平地必有蒼松。落落如翠蓋狀。亘數里。行人多從松下行。盛夏亦有爽氣。天吼山在襄陽。其洞壑峯巒。可與金剛並稱。特立盤礴不大耳。名藍淨土。多高僧棲結者云。余觀日出凡三處。留海山亭最久。而多雨只得三次。清澗亭。洛山寺皆清霽。而洛山寺所看尤偉。世稱洛山觀日出者。亦有由歟。襄陽使君爲余觴于洛山寺之梨花亭。酒半移席于義相臺。見數點從天際來。邑人言漁舟且至。俄以白帆泊岸供海珍。遂劇飲。席次小妓詠松江相國關東曲。頗清婉。聽之神王。祥雲驛留客堂頗淨灑。庭畔烏竹。蔥菁可愛。一面際海。長松數十里蔭映白沙。關東名區也。驛官供梨五枚。其大如數升瓠。入江陵界地勢頗寬闊。村居豐腴。觀瀾亭下。蒼松沿溪十里。時值深秋。而海上秋色頗遲。紅葉正纔可翫。亭臺間題詩滿壁。皆宦客作。考其歲月。或有五六十一年者。而已不識誰何。噫。世間名宦者。無非竊虛聲。馳騖一時。身歿而名不稱如此。悲哉。牛頭臺邊靚粧人候之。就視卽江陵籍妓玉娘也。蓋少日平康舊伴。不見而十餘年。昔日丫鬟小奴。已具衰相。渠亦驚我鬢髮。渡江門橋望見臨湖樓閣。隱映林間。丹樓聳空者。遂馳往款扉。亭空無主。庭畔碧梧脩竹。政可人意。表裏湖海。爭相獻奇。時斜景浸湖。海濤接天杳杳。海上第一區也。

▶6. 오대산을 거쳐 용진에 당다
9월 15일

경포대(鏡浦臺)에 올라갔다. 저녁 노을이 거꾸로 비쳐 바다가 울긋불긋한 비단과 같았는데 잠시 후 푸른 달이 하늘에 뜨니 비단을 펼쳐놓은 것 같던 호수와 바다가 이내 바뀌어 수정궁의 세계가 되었다. 취하여 대 아래로 내려가 작은 배에 기생을 태우고서 즐기면서 물 한가운데에서 술을 마시며 놀았다. 밤이 깊어지자 차가운 기운이 생겨 이슬이 촉촉하게 내리니 신선이 노니는 것 같았다.

한밤중에 경포대에서 초당으로 돌아오니 주인이 술을 준비하고 기다렸다. 내가 취한 채로 올라가 촛대를 잡고서 벽 사이에 있는 시들을 보니 백여 편이나 되었다. 나는 기재(企齋) 신광한(申光漢)의 시 한 절에 화답하고서 기생들에게 음악을 연주하게 하고는 마음껏 즐거움을 다하였다. 땅의 형세가 평원하여 지은 집이 아주 깨끗하고 고와서 명주(溟州)에서 제일이었다.

경포대는 잠와(潛窩)공 이 다시 지은 것으로 아주 크기는 했으나 다만 양포(楊浦) 최전(崔澗)의 시 하나와 계곡(谿谷) 장유(張維)의 기문만을 걸어두었고 편액은 내가 썼다. 명주에는 호족이 많아 집들이 크고 화려하였다. 성의 동문 밖에는 모두 사대부들이 사는데 붉은 기와와 그림이 그려진 기둥이 즐비하였다. 향읍에도 이와 같은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서울도 난리를 겪고 나서는 이만하지 못하였다.

한송정(寒松亭)은 옛날에 신선들이 놀며 쉬던 곳으로 아직도 단약을 만들던 아궁이와 우물이 있다. 푸른 소나무 하얀 모래가 참으로 정토였는데 바닷가에는 이와 같은 곳이 적지 않았다.

대관령에 올라 마을집들을 보니 개미같이 작고 경호는 국자만하였다. ‘태산에 올라서야 천하가 작다’라고 한 것을 알게 될 뿐이니 대관령은 웅장하다고 할 만하다. 강릉에서 곧바로 고개 위까지는 사십 리나 되는 먼 길이다. 고개를 넘으면 횡성(橫城)의 경계가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평지이고 그 사이의 우전(郵傳)은 모두 고갯길로 백 이십 리 정도 된다.

강릉 일대는 가을빛이 정말 찬란하여 단청을 칠한 듯하였고 횡계(橫溪)에 이르러 절벽과 골짜기에 드니 떨릴 정도로 추웠다. 서리가 내린지 오래 되어서 나뭇잎은 모두 다 떨어졌다. 거리는 수십 리인데 기후가 전혀 달랐다.

오대산의 앞 들은 성평(省坪)이라 부르는데 어림대가 있는 작은 언덕이다. 민간에 전하는 바에 의하면 세조께서 오대산에 행차하셨을 때 여기에서 말을 쉬게 하면서 문사와 무사들을 뽑으셨다고 한다. 그런데 무사를 뽑을 때에 활과 말로 시험하지 않고 소를 타고 고개 아래로 달려가게 하여 떨어지지 않는 사람을 합격시켰다고 하므로 강릉에는 소를 타고서 급제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오대산의 크기는 금강산과 비교하면 제나라와 추나라 정도에 지나지 않아 봉우리들이 둥글고 살이 찢 듯하고 수석들도 기이한 곳이 없다. 우동수(于同水)만은 작은 절구 정도의 크기인데도 한강의 근원이 되니 신기하구나. 세상에 이 물이 아주 특이하다고 전하는데 내가 한 모금 마셔보니 달고 차가웠고 차를 끓이니 더욱 맛이 좋았다.

상원사(上院寺)는 세조의 원찰로 규모가 크고 화려한 것이 비길 데가 없다. 소장하고 있는 그릇들이 아주 많았다. 한 흰 병풍은 청지수(淸之手)의 글씨여서 진귀하다고 할 수 있다. 월정사의 중문(重門)에는 석천(石川) 임억령(林億齡)의 오언 율시 두 수가 걸려 있는데 읊어볼 만하다.

오대산은 좋은 재목이 울창한 곳으로 나무들이 하늘을 찌르고 해를 가리울 정도로 큰 것은 나무 둘레가 수십 아름 정도나 되었다. 옛 사람들이 말하기를, ‘바다를 보고 나니 물이라 하기 어렵다.’고 했었는데 나도 ‘오대산을 보고 나니 나무라 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월정사에는 선(禪)에 대해 말하는 승려가 없었다. 동쪽의 관음암(觀音菴)에 곡식을 끊은 늙은 승려가 살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가보려 하였다. 이름은 성정(性淨)이고 나이는 68세이며 몸은 토목(土木) 같고 암자에서 나오지 않은 지 7년이 되었으며 말도 하지 않고 먹지도 않은 지가 아주 오래 되었다고 하였다. 내가 가서 말도 하고 질문도 하니 드디어 눈을 뜨고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그대는 같이 이야기할 만하다.’라고 하였다.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메아리와 같았다.

나는 승려를 무척 좋아하는 버릇이 있는데 승려 가운데서도 나를 좋아하는 이들이 많다. 서산대사 이하 유명한 승려들을 보지 못한 이들이 없고,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계행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 그런데도 금강산에 살고 있는 선사들을 보니 성정만큼 지행을 모두 갖춘 이는 없었다. 그가 입정(入定)하면 그것을 깰 수 없는 것이 오래 된 우물과 같았다. 가까이 가기만 해도 정신이 깨끗해지고 맑아지며 그의 말의 갈

날은 예리하여 크게 의심스러운 것이라도 한마디로 해결하였다. 그 뜻과 기개를 보니 한 시대를 능가하기에 충분하였다.

내가 묻기를,

“사교(四敎)에는 원래 공안법(供案法)이 없었는데 조주(趙州)로부터 시작되었고 지금의 수행법은 사교를 본받지 않고 조주의 면목만 의지하고 있으니 이와 같이해서 도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성정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선생께서는 도를 아십니까? 선설에 대해 듣고서도 의심을 하시는군요. 유교를 예로 삼아서 증명하겠습니다. 공자와 맹자는 제자와 문답함으로써 설파하였을 뿐이고 송나라의 유학자들이 주경설(主敬說)을 처음으로 내놓았습니다. 유가의 주경은 바로 불가의 공안입니다. 성인의 시대와 멀어지니 그 말씀도 없어져 큰 도는 황량하게 되었고 인욕이 천리를 없애게 되었습니다. 유가나 불가가 모두 마음에서 구해야 하는데 마음을 구하는 요령은 욕심을 없애는 데에 있으므로 이것을 가르침으로 삼아 경(敬)으로써 하고 무(無)로써 하기도 하지만 인욕을 없애고 뜻을 정하는 것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인욕이 모두 깨끗이 다하여 없어지게 되면 천리는 저절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바위가 막아서 앞이 안 보이는 고개를 지나 청심대(淸心臺)에 이르니 매우 높고 시원스러웠다. 누대 옆에 우물이 있는데 이름도 우동이었다. 물맛이 아주 훌륭하여 오대산의 물과 다르지 않았다.

대화역(大和驛) 옆에 석굴이 있는데, 그 입구는 한 사람이 간신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이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면 높고 커져서 멧리를 가도 끝나지 않는다. 옆으로 뚫린 동굴이 셀 수 없이 많다. 불을 비추어 보면 돌모양이 아주 기이하여 형용할 수 없다. 아래쪽에서는 여울 소리가 들리기는 하지만 흐르는 물이 보이지는 않으니 땅속에 반드시 아주 큰 물이 있을 것이다. 석중유는 설탕 같아서 동굴문을 나서면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진기하게 되었다.

원주와 황성 사이의 촌락들은 쓸쓸하고 산수도 그리 아름답지 않았다. 그러나 한 거센 여울, 기이한 석벽을 만나면 말을 멈추고 시를 읊으며 완상하였으니 만나는 곳마다 흥을 돋우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섬강과 여주 일대에는 누대가 뛰어난 곳이 없다. 청심루에 이르니 훨씬 시야가 트였다. 용문산의 산세는 평평하게 널리까지 뻗어 있다. 목은(牧隱) 이색(李穡)이 남긴 자취가 있어 오랫동안 나그네로 다니는 이의 마음을 달래기에 충분하였다. 밤중에 배를 타고 용진에 닿으니 멀리 강 위에 불빛이 보이고 아이들이 내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배에서 내리자 한 아우와 세 아이들이 와서 절을 하자 마음이 아주 기뻐졌다. 천리의 명산이 사랑의 뿌리를 끊지 못하였으니, 그를 생각하며 미소지었다.

일행 가운데에 정예남(鄭禮男)은 노자와 불가의 말들을 잘 이해하고, 최기남(崔奇男)은 시도 잘 짓고 글씨도 잘 썼고, 승려 계정(戒淨)은 글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나 온순하여 같이 친할 만하였으니, 이 세 사람들은 사령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자질이 있다. 매번 기생이 있는 곳에 이를 때마다 계정에

게 기생과 함께 노래하고 춤을 추게 하여 방외(方外)의 놀이를 하기도 하였다. _끝

九月十五. 登鏡浦臺. 夕霞倒映. 湖海如緜錦. 俄璧月中天. 如錦者翻作水晶世界. 扶醉下臺. 駕小航載妓樂. 中流飲謔. 夜久涼生. 沆瀣淋漓. 覺叵遊也. 夜半從鏡浦投草堂. 主人具酒候之. 余扶醉以登. 秉燭觀壁間詩. 無慮百篇. 余和申企齋一絕. 令妓輩作樂. 極意歡暢. 地勢平遠. 結構精麗. 甲於溟州. 鏡浦臺. 潛窩公所重棚. 甚宏敞. 只揭崔楊浦一絕及張谿谷記文. 而榜額即余筆云. 溟州多豪族. 第宅宏侈. 城東門外皆士大夫居. 朱薨畫桷. 比之如櫛. 不但卿邑間無此. 京華經亂. 不得如此. 寒松亭. 舊稱叵眞所游憩. 尚有丹竈丹井. 青松白沙. 固是淨土. 而海邊如此地者亦不少. 登大嶺見邑屋. 小如蟻蛭. 鏡湖如斗. 方知登泰山小天下耳. 大嶺可謂壯矣. 自江陵直抵嶺上四十里而遠. 踰嶺出橫城界. 方爲平地. 其間郵傳皆嶺路. 百有二十里也. 江陵一境. 秋色政佳. 燦然如丹青. 到橫溪. 崖谷樛檐. 霜降已久. 木葉盡脫. 相距數十里. 而氣候頗異. 五臺山前野號者坪. 有御林臺. 臺即小堆阜也. 俗傳光廟幸五臺時. 駐驛于此. 取文武士. 而武學不試弓馬. 令騎牛馳下峻坂而不墜者爲入格. 故江陵有騎牛及第之說. 五臺之大. 比金剛不翅齊鄒. 而其峯巒圓肥. 水石無奇勝處. 唯于同水一小曰. 而爲漢源者異矣. 世傳此水殊異. 余爲一啜甘洌. 煮茶尤佳. 上院. 即光廟園利. 宏侈無比. 所蓄器血極富. 一素屏乃清之手筆. 爲可珍. 月精重門. 掛林石川五言律二首. 爲可詠. 臺山即杞梓之淵藪. 參天蔽日. 其大或數十圍. 古人曰觀【於海難】爲水. 余亦謂觀於五臺. 難爲木也. 月精無談禪之僧. 聞東觀音菴有休糧老宿. 以計致之. 名曰性淨. 年六十八歲. 形骸土木. 不出菴已七年. 而不語不食者久云. 余設方便語質之. 遂開目菴爾曰. 宰官可與語也. 應之如響. 余有愛僧癖. 僧亦多款余者. 自西山以下諸名釋無不見. 雖未及見者. 蓋得其戒行矣. 又從金剛闕禪宿之棲定者. 未有如性淨之知行俱高也. 其入定未破如古井. 既接爲□. 精神渙發. 辭鋒超邁. 雖大疑端. 以一句決之. 見其志槩. 有足以凌駕一世. 余問四敎無供案法. 自趙州始. 今之做工. 不法四敎. 只依趙州面目. 如是而可以入道末. 淨笑曰. 措大能識道理麼. 禪說聽瑩. 假儒爲證. 孔孟只因弟子問答說破. 而宋儒始說出主敬. 儒家之主敬. 即禪氏供案之意. 蓋聖遠言湮. 大道榛蕪. 人慾滅天. 儒釋皆當求心. 求心之要在祛欲. 故以此爲敎. 或以敬或以無. 祛慾定志則一也. 人慾淨盡. 天理自見耳. 過嶺巖阻無開眼處. 到淸心臺. 頗高爽. 臺邊有井. 亦名于同. 味極佳. 與五臺之水無別. 大和驛傍有石窟. 門戶僅容一人. 其中轉高大. 行數里. 不可窮. 傍穴無算. 持火照之. 石縫奇異. 不可名狀. 下有灘聲而不見其有水. 地中必有流水甚大. 石鍾乳如飴糖. 出門堅如石. 異焉. 原橫之間. 村居蕭條. 山水亦不甚佳. 而遇一激湍怪壁. 便停驂吟翫. 方知所遭. 便足遣興. 蟾驪一帶. 無樓臺之勝. 到淸心樓. 頗敞豁. 龍門山勢平遠. 牧老舊蹟. 足以慰藉久客之懷. 夜半舟行到龍津. 遙見江上火. 兒輩候余至也. 下舟一弟三兒來拜. 心便欣然. 千里名山. 未斷愛根. 爲之一哂. 行中所帶鄭禮男. 頗識老佛家言. 崔奇男能詩能筆. 僧戒淨不識一丁. 而馴狎可弄. 三者足資遂游使令. 每到妓場. 輒令淨也伴妓歌舞. 遂爲方外之戲. _끝

신익성 약력

- 신익성(申翊聖 正肅公派 21世 1588년 선조21년 ~ 1644년 인조22년)
- 문정공(文貞公) 상촌 신흠(象村 申欽, 영의정 역임)의 장남, 1599년 선조의 정숙옹주(貞淑翁主)와 혼인, 동양위(東陽尉)로 봉해짐.
- 부친(申欽)께서 평천보(平川譜)등 여러 문헌을 참고하여 草稿한 平山申氏 최초의 족보(姓譜)인 병자보(丙子譜)를 마무리하고 발간하였다.

건강정보



치매 바로 알기

1. 치매란 무엇인가?

정상적인 사람이 뇌에 이상이 생겨 지적 능력이 떨어지고 예전처럼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정상노화의 과정으로써 노인성 건망증이 발생할 수 있지만 치매의 경우 기억장애 뿐 아니라 다른 인지능력의 장애가 함께 발생하며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이 그 차이점이다.

2. 치매의 경고신호(3~4가지 이상 해당되는 경우 치매를 의심해보세요)

- | | |
|--------------------------|--------------------------|
| 1. 깜빡 깜빡 자주 잊는다. | 2. 평소 잘 했던 숙련된 동작을 잘못한다. |
| 3. 언어구사에 문제가 있다. | 4. 시간, 장소에 대한 감각이 흐릿하다. |
| 5. 판단력이 떨어진다. | 6. 추상적 사고가 잘 안 된다. |
| 7. 물건을 엉뚱한 곳에 두고 잘못 찾는다. | 8. 기분이나 행동이 잘 변한다. |
| 9. 성격이 변한다. | 10.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진다. |

3. 치매가 잘 걸리는 위험인자

여자일수록, 낮은 교육수준일수록, 뇌졸중을 앓았던 경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 과거 두부 외상이 있었던 경우 치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4. 치매의 원인질환

치매는 하나의 증상을 의미하며, 치매증상을 일으키는 질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흔히 잘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병이 전체 치매의 40%이상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흔한 치매의 원인 질환이 혈관성 치매이다. 이외에도 갑상선기능저하, 간기능 이상, 알코올성 치매와 같이 치료를 잘하면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는 가역적인 치매도 있다.

* 알츠하이머 치매 : 가장 흔한 노인성치매의 원인질환으로 대표적인 퇴행성 뇌질환이다. 서서히 시작되어 지속적으로 악화한다. 현재까지 원인적 치료방법은 없으며 증상의 악화를 더디게 할 수 있을 뿐이다.

* 혈관성 치매 : 반복적으로 뇌졸중(뇌출혈, 뇌경색을 통틀어 의미한다.)이 발생하는 경우 뇌기능이 점차 떨어지며 치매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혈관성 치매라고 한다. 고혈압, 심장질환, 흡연, 고지혈증, 당뇨병이 있는 사람의 경우 발생위험이 높다.

5. 치매를 진단하기 위하여 어떠한 검사를 하나요?

- 1단계검사 : 인지기능 검사, 혈액검사, Apoe 유전자 검사
- 2단계검사 : MRI 검사, 아밀로이드 PET 검사

6. 치매의 치료법

원인 질환에 따른 치료법이 다르다. 알츠하이머병의 경우 진행을 더디게 하는 약물치료를 하게 되며 혈관성

치매의 경우 뇌졸중 예방관련 약제를 사용한다. 두 경우 모두 약물복용을 통하여 완벽한 치료는 불가능한 상태이며 점차 진행되는 속도를 더디게 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약물치료 이외에도 충분한 영양공급, 적당한 운동, 즐겁게 생활하기와 같은 생활요법을 지속하는 것이 전반적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우울증상이 마치 치매 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우울증이 있는지 조사와 치료가 필요하다.

7. 치매를 예방을 위하여 권장되는 음식

- * 황산화작용 : 자두, 포도, 블루베리, 딸기, 키위, 야채의 싹, 브로콜리, 아보카도, 오렌지, 적포도, 체리, 시금치
- * 불포화지방 : 생선, 견과류(호두, 아몬드), 올리브유, 해바라기씨, 참기름
- * 비타민 : 녹황색채소, 과일, 맥아

▶ 치매예방을 위한 생활요법

- 고혈압, 당뇨병을 조절해야한다.
- 콜레스테롤을 점검해야한다.
- 절대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 심장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해야한다.
- 비만을 줄여야한다.
- 적절한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
- 과음을 피한다.
- 머리를 많이 쓰고 적극적으로 살아야한다.
- 폐경기 후에 여성호르몬을 투여한다.
- 우울증을 치료하고 밝게 산다.
- 기억장애가 있거나 언어장애가 있을 때 빨리 진료를 받는다.
- 사회생활, 봉사생활로 삶의 활력을 가진다.

[문화부 제공]

생활속 건강



아침 식전 양치에 대하여

잠을 자고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양치를 해야 합니다. 밤새 입안에서 번식한 세균이 어마어마하게 많답니다. 대부분 그냥 대충 물로 행구고서 냉수를 마신다고 합니다. 아니요 잘못입니다.

많은 세균을 매일 매일 먹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위암 발생률 세계1위가 되는 겁니다. 특히 양치할 때 잘 해야 하는 것은 혀바닥에 붙은 것들을 알뜰히 제거해야 합니다.

빨강계 혀바닥 색이 변할 때까지 칫솔로 계속 문지르고 물로 행구고를 대여섯 번 정도하시면 혀바닥 돌기가 생생히 살아 있는 걸 볼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꼭 녹차 내지는 청병 보이차 또는 쑥차, 감입차를 350cc 정도를 마십니다. 그래야 식도와 위장을 씻어 내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절대 위암과 모든 암에서 벗어 날 수가 있습니다. 몸에 좋다고 무엇을 먹을 것이 아니라 먼저 청소부터 해야 합니다. 실천해 보십시오. 위장 기능도 좋아지고 피부혈색도 좋아지고 보약이 따로 필요치 않

습니다.

작은 실천으로 큰 이익을 보는 것은 현명한 처사겠지요. 가글을 즐기는 사람이 많은데요. 양치질하고 가글로 마무리 해도 좋을가요? 전문가에 의하면 양치 후 가글을 바로하면 '합성 계면활성제'인 치약과 살균소독효과가 있는 가글의 염화물이 만나면 치아에 착색을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이어 치아가 까맣게 변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양치 후 바로 가글하는 것은 최악이라고 합니다. 정 가글을 하려면 양치 후 30분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자기 전에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복 중에 하나라고 하는 치아건강,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문화부 제공]

간디의 재치

인도 출신인 '간디'가 영국에서 대학을 다니던 때의 일화입니다.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지를 않는 식민지 인도 출신인 학생 간디를 아니꼽게 여기던 '피터스'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간디가 대학 식당에서 피터스 교수 옆자리에 점심을 먹으러 앉았습니다.

피터스 교수는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어요. "이보게, 아직 모르는 모양인데 돼지고기와 새가 같이 식사하는 일은 없다네" 간디가 재치 있게 응답하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교수님 제가 다른 곳으로 날아가겠습니다." 복수심에 약이 오른 교수는 다음 시험 때에 간디를 애먹이려고 했으나 간디가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간디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길을 걷다 돈 자루와 지혜가 든 자루를 발견했다네. 자네라면 어떤 자루를 택하겠나?" 간디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야 당연히 돈 자루죠" 교수가 혀를 차면서 빈정댔다. "쫓쫓, 만일 나라면 돈이 아니라 지혜를 택했을 것이네." 간디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뭘, 각자 부족한 것을 택하는 것 아니겠어요." 히스테리의 상태에 빠진 교수는 간디의 시험지에 '멍청이'라고 써서 돌려주었습니다. 간디가 교수에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제 시험지에는 점수는 없고 교수님 서명만 있는데요." ('멍청이') 간디의 재치와 평화로운 마음 상태를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욕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조롱을 하면 상심하지요. 이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상대방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상대의 어리석음을 연민하면 될 뿐입니다. 간디는 현명한 재치를 가졌을 뿐이었습니다. 쉽진 않지만 간디의 말처럼 누군가의 말에 자유로운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총무부 제공]

인사

신임 상임유사(新任 常任有司)



- 전북화수회장(全北花樹會長)
- 申正次(謚名 鉉卓, 正言公派 33世), 1942年 2月 12日生
- 새마을금고연합회 전북지부 사무국장, 전북화수회 선임부회장, 전북완주군 화수회장



- 광주전남화수회장(光州·全南花樹會長)
- 申相南(文僖公派 35世), 1953年 7月 18日生
- 역사바로찾기 광주전남지부장, 광명주력부사장, 광주전남청장년회장

춘천 시조 장절공

추향제(秋享祭) 안내

금년도 추향제는 10월 25일(음력 9월 9일) 일요일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질환이 계속 전파되고 있어서 종전과 같은 대규모 행사 여부는 조금더 지켜본 후에 파, 화수회, 또는 종원들을 통하여 알려드리고자 하오며, 현재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지난 춘향제처럼 소규모 행사(지난 춘향사에는 제례위원, 대중중도유사의 직원, 강원도화수회 종원 일부가 참석 봉행하였음)가 불가 피하오니 이점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대중중(02-776-6111, 6151) -

2020학년도

2학기 장학금 지급

대중중에서 선정한 2020년도 장학생들에게는 2학기 장학금이 8월 31일 이내 지급될 예정입니다. 금년에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들은 재학증명서와 1학기 성적증명서 각 1통씩 8월 15일까지 보내주시고, 장학금을 수령하면 학교에 등록하고 영수증 사본을 9월 15일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미등록이나 성적이 미달(전 성적보다 10%이하)시에는 장학금이 중단되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 pyongsan777@naver.com

2020년 8월 ~2020년 10월 행사 안내

- 8월 31일(월) 장학금 지급
- 10월 1일(목) 덕양서원 추향사(음 8월 중정일)
- 10월 4일(일) 송의전 추향사
- 10월 17일(토) 모영재 향사(음 9.1)
- 10월 25일(일) 시조 장절공 추향사 봉행(음 9.9)
- 10월 31일(토) 용산단 향사(음 9월 중정일)
- 10월 31일(토) 187호 종보 발행 예정

전화 사기판매 피해방지를 위한 안내

평산신씨 대중중을 사칭하거나 중중에 근무하는 임직원인 것처럼 가장하고 전국의 종원들에게 책자나 영상물, 가훈 등을 판매하는 행위가 신고 되고 있습니다. 대중중에서는 근래 특별히 발행한 책자가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전화판매가 있을 시는 반드시 대중중 또는 파중중, 화수회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혹시 그런 책자를 받으신 분들은 발행처나 발송처로 반송(내용증명으로)하셔서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종원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 대중중 전화번호 : 02-776-6111, 6151)

종보구독을 권유합니다

종보는 평산신씨의 얼굴이고 역사입니다. 선조들의 삶에서 지혜와 교훈을 배우고 또 전국의 종원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모두가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평산신씨 가문에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게 할 것이며 동질성의 확인으로 소속감을 갖게 될 것이고 친목과 화목·단결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 후손들에게는 든든한 뿌리가 되어 번창할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부터 가까운 친척 또 이웃에 계신 종보를 보지 않는 종원들에게 종보를 보시도록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독신청

· 대중중 : 02-776-6151, 6111 / 파중중 및 화수회 담당자

종보에 게재할 원고 모집

- 시, 수필, 콩트, 기행문 등 문예작품(A4 2매 이내)
- 선조 및 종사에 관한 글, 종중행사, 미담(美談) 등
- 채택된 원고는 종보 게재용으로만 활용(문인협회 등단자 우선함)
- 보낼 곳 : 평산신씨대중중(이메일:pyongsan777@naver.com)

족보 신청 받습니다.

평산신씨 대중중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종친회원이 되시면 '전자대동보' 메뉴에서 족보를 검색하여 볼 수가 있고, 별도로 수단 신청(신규등재, 수정, 변경, 추가, 삭제 등)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수단 신청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보내시면 일 년에 두 번(상반기, 하반기)등재 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홈페이지 : <http://www.pyeongsan.com>

종보 성금 내신 분 (2020. 4. 20 ~ 7. 20)

보내주신 성금에 감사드리며, 투명하고 알뜰하게 잘쓰겠습니다.

개 인

신동성 경남 창원시	20,000	신석준 서울시 구로구	20,000
신승수 광주시 북구	20,000	신현호 서울시 구로구	20,000
신재철 경기도 시흥시	30,000	신인호 서울시 구로구	20,000
신경수 전남 장흥군	40,000	신현주 경북 포항시	30,000
신양수 경기도 고양시	30,000	신현태 서울시 성동구	100,000
신세호 경북 봉화군	50,000	신현식 경기도 성남시	20,000
신용주 경기도 성남시	50,000	신문철 충남 천안시	20,000
신용환 광주시 서구	30,000	신동순 경기도 화성시	20,000
신현석 전북 익산시	20,000	신장현 서울시 은평구	20,000
신도균 서울시 동작구	20,000	신태철 서울시 은평구	50,000
신현문 경기도 양평군	20,000	신금철 인천시 중구	30,000
신택용 대구시 달성군	100,000		

파 중 중

현령공파중중	100,000
--------	---------

소 중 중

문화공파 창원서곡중중	40,000	제정공파 약목중중	100,000
사간공파 해정공중중	50,000	한성윤공파 선원공중중	60,000
제정공파 울산대문중	30,000	제정공파 울산동상중중	50,000
문화공파 주촌중중	60,000		

시도 화수회

전북화수회	100,000
-------	---------

시군구 화수회

서울중앙구화수회	30,000	영주시화수회	100,000
공주시화수회	160,000	광주시광산구화수회	50,000
안양시화수회	50,000	서천군화수회	50,000
홍성군화수회	50,000		

합 계 1,860,000원
금년총액 6,536,056원

<종보 배부 기준 및 성금>

- ★ 파중중·시·도화수회 : 50부까지 년 100,000원
- ★ 소중중·시·군·구화수회 : 20부까지 년 50,000원
- ★ 중 원 : 1부 년 20,000원

* 종보가 부족할시 10부당 성금을 20,000원 추가함.

종보 성금 : 하나은행 101-910005-90004 (평산신씨 대중중)
인터넷족보비 : 하나은행 027-766111-23504 (평산신씨 대중중)
구독 신청 : 02)776-6111, 776-6151

“알 림”

다음 종보는 2020년 10월 31일 발행 예정입니다.